Daily Auto Check 2020. 8.6(Thu)

meritz 메리츠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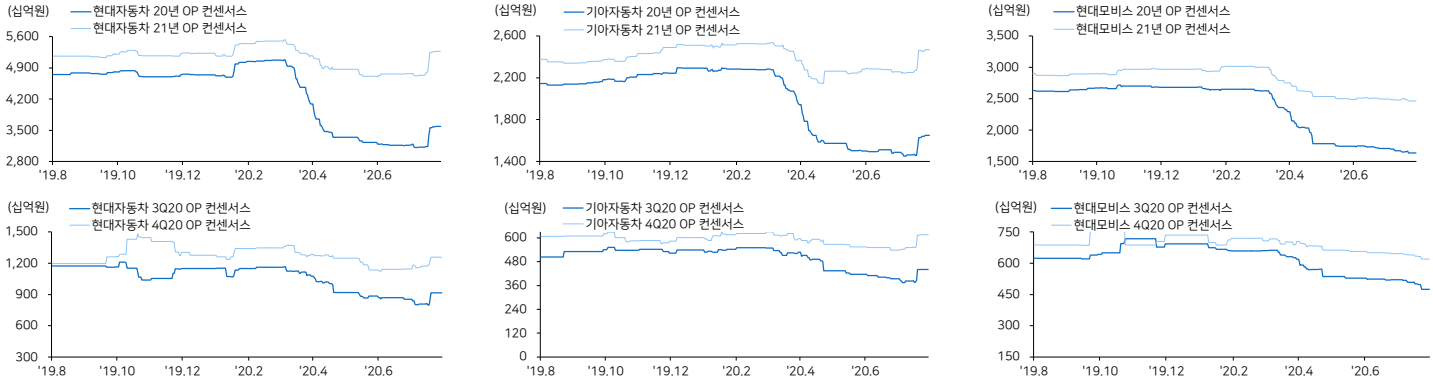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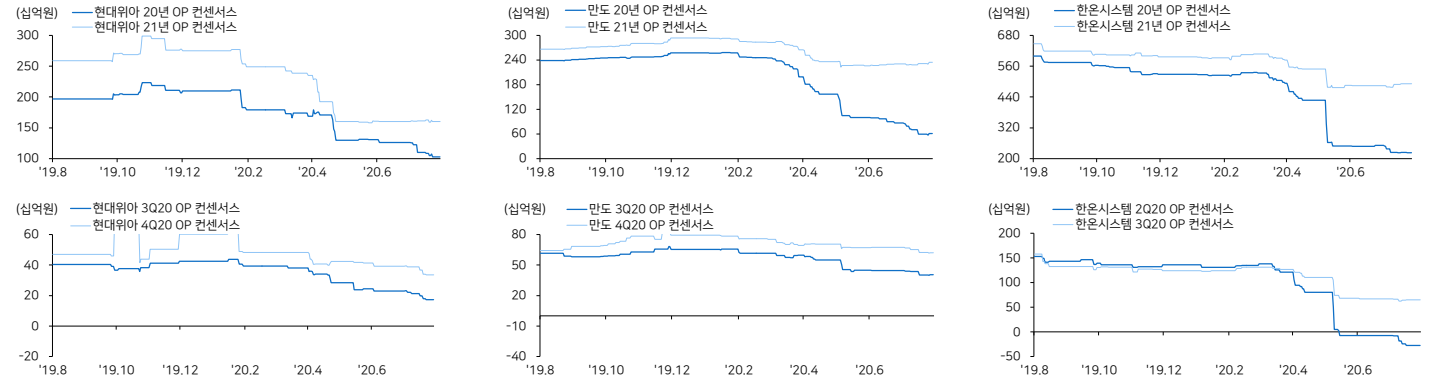
RA 이다빈
02.6454-4882
dabin.lee@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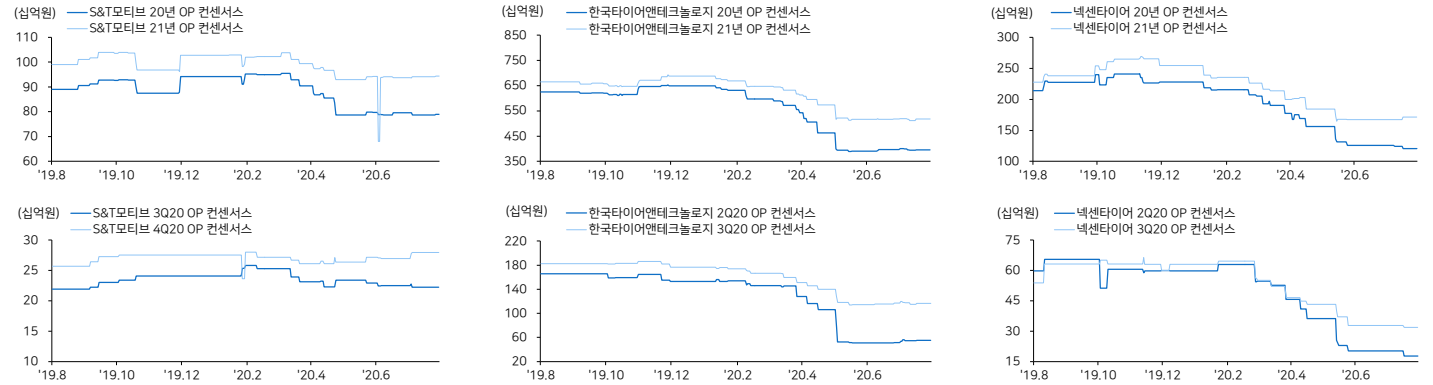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신기록 경신' 그랜저 · '국민車 탈환' 아반떼…세단 부활에 웃는 현대차 (이데일리)

SUV의 강세로 하락세를 걷고 있던 세단 모델들이 7월부터 시행된 개소세 인하 혜택 축소(3.5%→1.5%)라는 악재에서 현대차를 살리는 구원투수가 됨. 현대차는 그랜저와 아반떼 등 신형 세단들에 힘입어 압도적인 내수 성장을 이뤄냄.
https://bit.ly/39WD5iO

현대차, 유럽서 블루링크 업그레이드…i30 페이스리프트 첫 적용 (더그루)

현대차가 유럽에서 커넥티드카 기술인 '블루링크'의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진행. i30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최초 적용. 현대차는 오는 9월 부터 블루링크가 장착된 전 차종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
https://bit.ly/30tZ5yh

떠돌이개가 복덩이 됐나...현대차, 브라질 시장서 4위로 올라서 (파이낸셜뉴스)

떠돌이 개에서 브라질 현대차의 마스코트가 된 '투싼 프라임'이 복덩이가 됐을까. 코로나19로 인한 침체속에서도 현대차가 브라질 자동차 시장에서 4위로 올라섬. 현대차는 7월 브라질 시장에서 1만5091대를 판매.
https://bit.ly/2XAmcFI

유럽 전기차 배터리 왜 한중일 차지? '독립운동' 나선 영프독 (중앙일보)

그간 한국 · 중국 · 일본 등 동아시아 아시아 국가들이 휩쓸어 왔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 유럽 업체들이 잇따라 뛰어드는 모양새. 거대 시장을 업고 있는 독일 · 프랑스 · 영국 업체들이 그 주인공들.
https://bit.ly/2DERqUK

"쏘렌토 끌고 카니발 밀고" 기아차 'RV명가' 명성 재확인 (에너지경제)

기아자동차가 신차 흥행에 힘입어 'RV 명가' 명성을 재확인 중. 국내에서 카니발, 쏘렌토 등 베스트셀링카의 수요가 크게 늘어 올해 RV 누적 판매가 세단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https://bit.ly/31hVz9u

자동차도 페이시대… 현대차 '카페이' 전국서 사용한다 (파이낸셜뉴스)

현대차그룹이 최근 '카페이' 가맹점을 전국 1233개로 확대하며 간편결제 경쟁에 뛰어듦. 카페이는 자동차에서 내릴 필요 없이 차량 내 탑재된 네비게이션 터치만으로 주유 등 자동 결제가 이뤄지는 간편결제시스템.
https://bit.ly/2EPJCA9

현대모비스, 자율주행기술 테스트 위해 이스라엘 코그나타와 제휴 (M오토데일리)

현대모비스가 이스라엘 시뮬레이션 전문기업인 코그나타와 제휴, ADAS와 자율주행차 기술 테스트에 나섬. 이번 계약으로 현대모비스는 코그나타의 트래픽 모델을 사용, 실제 도로상황에 기반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됨.
https://bit.ly/3kdTbsZ

브리지스톤, 폭스바겐 전기차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IT조선)

폭스바겐 순수 전기차 ID.3에 신차용(OE) 타이어로 브리지스톤 제품이 장착. 타이어 경량화 기술 '인리텐'이 적용된 신제품. 브리지스톤은 친환경 타이어 투란자 에코를 상용화해 폭스바겐에 공급한다고 밝힘.
https://bit.ly/3ftCCG1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